



[경제종합]
정의선 회장
친환경 미래사업
글로벌 진두지휘

04

창간 20년
since 2002



Economy
매일 아침, 나를 키우는 메트로

코스피 2483.16 (+80.93)	코스닥 731.22 (+23.44)
금리 (국고체 3년) 3.834 (-0.199)	환율 (원·달러) 1318.40 (-59.10) (11일)

3高에 투자 가뭄… ‘옥석 가리기’ 시작

엔데믹시대,
 유통산업 어디로

〈下〉 버티컬 커머스

고물가 시대, 업계 희비 교차
고개학보만으로 인정 어려워
추가 투자 없이 생존 불투명

오늘식탁 권고사직·영업중단
힙합피도 수익성 악화로 종료

한동안 ‘유니콘’을 쏟아내던
버티컬 커머스에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특정 카테고리만을 전문으로
다루는 버티컬 커머스는 차별화
된 서비스와 상품으로 고객을
확실하게 끌어인(Lock-In)하면
서 한동안 e커머스 기업들의 새
로운 생존책으로 떠올랐다. 그



오늘의집은 지난 5월 2300억원 규모의 시리즈D 투자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버티컬 커머스 플랫폼 ‘옥석 가리기’가 가속화하고 있다.

최근 버티컬 커머스 업계는
투자금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 3
고 사태로 자본 운용이 보수화
돼 단순히 확보한 활성고객의
수만으로는 투자 가치를 인정받기
어려워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거품이 걷
히고 있다”며 “한동안 플랫폼 기
업, 특히 방대한 회원수를 확보
한 플랫폼 기업이라면 언젠간
성공한다고 보고 투자가 이어지
는 때가 있었다. 지금은 투자시
장이 얼어붙은 상태이기 때문에
적자가 이어지면서도 제대로 된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하는 기업
은 아기 유니콘이 아닌 ‘밑빠진
독’으로 통한다”라고 밝혔다.

지난달 발란은 250억원 규모
의 시리즈C 투자 유치에 성공했

다. 본격적인 고물가 사태가 시
작되기 전 발란은 명품 커머스
업계 1위 기업으로 꼽히며 기업
공개(IPO) 시점을 두고 세간의
관심이 몰렸다.

그러나 이번 시리즈C 투자내
역을 보면 주춤하는 성장세가
보인다. 지난해 10월 있었던 시
리즈B 당시 발란은 2500억원의
가치를 인정 받고 325억원의 투
자금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이번 투자에서 발란이
인정받은 기업가치는 3000억원
수준이며 투자금 또한 지난해
보다 줄었다.

지난 9월에는 수산물 당일 배
송 서비스 ‘오늘회’ 운영사인 오
늘식탁이 전 직원에 권고사직을
통보하면서 충격을 줬다.

〈2면에 계속〉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열린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에 참석해 있다.

/뉴스스

“5년내 투자 1.7배 ↑… 전략적 경제 동반자 구축”

尹, 한-아세안 정상회의 성과
포용·신화·호혜 연대구상 강조
필리핀 등 협력 대상국도 확대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
연합) 관련 정상회의 참석차
캄보디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
령이 자유·평화·번영의 3대 비전
을 바탕으로 포용·신뢰·호혜의 3
대 협력 원칙을 담은 ‘한-아세안
연대구상’을 강조하며 한-아세
안의 연대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
했다. 〈관련기사 5면〉

이에 윤석열 정부는 윤 대통
령의 한-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을 계기로 아세안과의 교역 규

모를 2021년 기준 1785억달러
에서 5년 내 2600억달러로 약
1.5배 성장하고, 대(對) 아세안
투자 규모도 960억달러에서
1600억달러로 약 1.7배 늘릴 계
획이다.

이를 위해 ▲아세안 국가들과
의 협력 다변화 ▲핵심광물 확보
및 첨단산업 공급망 협력 강화
▲디지털 전환·아세안의 산업구

조 고도화 등 경제구조 전환 협
력 방안을 추진한다.

윤석열 정부의 구상은 아세안
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
장하고 있는 지역 중 한 곳이며,
아세안 시장이 2030년에는 일본
을 제치고 세계 4위 경제권으로
도약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우리
나라와의 상호 보완적인 산업구

조로 협력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
되며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한-
아세안 연대구상을 통해 아세안

과 공동의 번영과 발전을 추구하
고자 했고, 정상회의에 참석한
아세안 정상들을 통해 디지털·
스타트업·기후변화 대응 등 다
양한 부문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강하게 희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전 정부까지 대 아세안
전략은 교역과 투자가 베트남,
싱가포르 등 일부 국가에 집중돼
아세안 지역 전체로 확산되지 못
한 한계가 있었고,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

과 공동의 번영과 발전을 추구하
고자 했고, 정상회의에 참석한
아세안 정상들을 통해 디지털·
스타트업·기후변화 대응 등 다
양한 부문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강하게 희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전 정부까지 대 아세안
전략은 교역과 투자가 베트남,
싱가포르 등 일부 국가에 집중돼
아세안 지역 전체로 확산되지 못
한 한계가 있었고,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

데믹 이후 안정적 공급망 확보가
경제 안보의 핵심으로 떠올랐으
나 아세안 지역에 대한 구조적·
전략적 접근이 부족했다고 진단
했다.

윤 대통령의 한-아세안 연대
구상에 따른 경제 분야 협력은
아세안의 경제구조를 지원하는
동반자로서 경제 파트너십을 구
축해 나가는 데 중점을 뒀다.

구체적으로는 아세안 연대를
지속 가능하고, 상호 호혜적이기
위해 우선 경제 협력 대상국을 베
트남, 싱가포르뿐 아니라 인도
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
국, 캄보디아 등 모든 아세안 국
가로 확대해 나간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국가별 특

성 및 산업 발전 정도에 따라 차
별화 전략을 펼 계획이다. 예를
들면 베트남과는 산업·에너지 전
분야 국제분업 관계 고도화를, 인
도네시아와는 광물자원 확보와
디지털 전환, 싱가포르와 디지털
규범 협력, 태국과 한-태 CEPA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협상
재개, 말레이시아와는 그린수소
등 미래 에너지 분야 협력, 필리
핀과는 원전·방산·인프라 협력
등을 강화해 나간다.

또, 우리나라 산업 발전에 필
수적인 핵심 광물을 확보하고,
첨단 산업 공급망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5면에 계속〉

/박정의 기자 pathfinder@

버스터비 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尹정부 첫 ‘예산 국회’ 곳곳 파열음…
정기한 준수 ‘먹구름’ /사진 뉴시스

▲민주 “천화동인 1호는 유동규… 김용·
정진상 소유 아냐”

▲尹 대통령 취임 1주년 행사 예산 5억원
… “절감 논의”

▲국민의힘 “세월호 희생자 지원금, 시
민단체 유용 확인 시 전액 환수해야”



▲ 정의당 “청년, 고스펙에도 희망 없어
… 노란봉투법으로 변화” /사진 뉴시스

▲ 동아시아 정상회의 참석한尹… “평화
로운 인태 위해 北 비핵화 불가피”